

‘쓰레기 만두소’ 사건으로 불량식품 문제가 세삼스러운 양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식품범죄의 뿌리를 뽑으라’ 지시하고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불명함 법을 지적하며 처벌규정을 고치고 단속을 철저해야 한다고 일제히 떠든다. 단속기관에서도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땅히 나와야 할 지시이고 지적이겠으나, 문제 있을 때마다 일과상으로 반복되는 스테레오적 발언과 반응들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량식품에 관련한 지금까지 모두 그래왔으니까.

냉동만두 뿐 아니라 불량식품의 경우 농약 또는 수은으로 기른 콩나물, 석회를 넣은 두부, 가족구장을 삶아 낸 ‘수구레 설렁탕’에 닭배공초로 맛을 낸 커피며 부대찌개, 대장균에 무방비한 냉면, 공업용 왁스로 화장시킨 과일류며 역시 유해 공업용 소금으로 담긴 절감 등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만큼 많고 그 수법은 시ết말로 엮기적이다.

해마다 몇 가지씩 드러나 세상을 한번씩 흥분시켜 온 이런 엽기적 불량식품 역사가 높은 이의 지시와 언론 및 여론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더욱이 사회 여러 문제들이 엮기를 선택하고 엮기를 노골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인간, 쓰레기를 먹다

만두란 음식은 ‘소’의 내용물에 따라 천차만별의 맛을 낸다. 다양한 재료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정성 또한 맛을 좌우 할 것이다.

그런데 전통만두의 식품재료에 ‘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만두에 언제부터 ‘무’라는 식품이 주 재료로 등장한 것일까?

즉석식품 냉동식품 등 대량생산 체제가 만두소에 ‘무’를 등장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왜 냉동만두에 ‘무’를 넣을까. ‘무’가 나쁜 식품도 아니고 ‘무말랭이’의 효능을 집히는 맛도 제법이다. 마치 육류를 씹는 느낌과

같이 한때는 돼지고기 대신 중국산 무말랭이만 넣고 만든 냉동만두도 있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이유는 중국산 유해 무말랭이를 돼지고기라 속인수를 썼다는 것으로 유해하고 찬 재료를 써서 높은 이윤을 남긴 비양심이 비단 대상이었다. 그것이 진화(進化)한 불량식품이 ‘쓰레기 만두소’일 것이다. 당시의 근절의지가 지속적인 것이었다면 이런 진화형 불량식품이 나올 수 있었을까.

냉동만두라면 소비자들의 육안으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택에는 신뢰가가는 식품회사의 것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우 그마저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라는 반응을 무릅쓰고라도 문제는 윤리 도덕, 사회적 양심부재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법을 우습게 아는 풍조, 그동안 준법을 솔선수범으로 보여 준 적이 없는 힘 있는 자들의 ‘모범(?)’이 조장해 온 것은 아닐는지.

‘한국음식은 마음으로 먹는다’ 했다. 눈을 즐겁게 하는 일본 음식, 맛을 강조하는 서양식, 속을 편하게 그래서 몸에 좋은 중국식 등으로 분류했을 때 정성을 높이 쳐 주는 한국 음식은 마음으로 먹게 된다는 뜻일 것이다. 천차만별의 맛은 곧 천차만별의 ‘마음’ 탓일 것인데 이제 천편일률의 맛을 만드는 패스트푸드화, 간편식 시대에 접어들어 소비자들은 불량식품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사회적 양심부재의 치유는 오래 걸릴 터이니 불편하더라도 천차만별의 ‘마음 식’ 쪽을 택하면서 이번에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을 또 한번 믿어 보기로 하자.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차는 가장 많은 종류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이다. 잠을 자고 정신을 맑게 한다. 작법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어 차를 끓이고 마시는 일은 마음의 수양을 돕는다. 차를 마시는 건강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화합을 이루고 건전한 기풍을 이루어낸다. 이러한 차를 널리 보급하는 일은 각 개인은 물론 국력을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행히 오랜 동안 일부 애호가의 전유물이었던 차 문화가 다시 소생하고, 대중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차와 관련된 산업도 점차 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차에 대한 올바른 품평 기준이 없어 애호가들이 좋은 차를 빠르게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차 생산량이 부족하여 검증되지 않은 외국차들이 소비자의 안목과 차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게 하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차에 대한 올바른 품평을 통해 좋은 차를 선별해 내는

제1회 차품평회를 환영한다

일이다. 올바른 평가 기준이 서야 좋은 차가 생산되고, 그것이 올바른 소비를 일으켜 차 시장을 확대시키고, 다시 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점에서 7월 17-18일에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차(茶) 품평회’는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차의 증흥조 초의선사가 주석했던 대흥사 일지암 암주를 맡고있는 여연 스님이 품평회 준비를 총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차 문화를 전승 보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 온 불교계가 이 일에 적극적인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품평회가 단지 귀족적인 차 문화를 위한 ‘한중세우기’ 품평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 종류의 차를 골고루 평가하며, 귀족적인 극품(極品)의 차를 가려내는 데만 힘을 기울이지 말고, 값에 비하여 우수한 대중적인 차를 선별하는 일도 아우르기를 바란다. 나아가 앞으로는 성분분석 및 공해물질 시험까지도 포괄하여 진정 우리 국민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차 문화 정립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엄정한 평가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여, 해가 갈수록 더욱 권위를 가지지는 품평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성원을 보내다.

■ 성태웅(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꾸며진 ‘나’

보라, 이 세상을 보라 임금의 화려한 수레와도 같나니. 어리석은 자는 여기 미처 정신없지만 현명한 이는 결코 이 실속없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다. <법구경>

“요즘 한국의 ‘은 사마’가 ‘준 사마’보다 인기가 더 많다.”

드라마 ‘겨울 연가’의 인기몰이에 힘입어 절정의 인기가 도를 달리던 ‘은 사마(배용준을 극존칭으로 표현한 말)’가 이제는 일본총리의 아성에 도전해 성공을 거뒀다. ‘냉철한 이상’의 이미지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은 드라마 속 ‘완벽한 조건’의 ‘순수남’에 열광했고, 그가 ‘근사한 바람둥이’로 그려진 영화 ‘조선남여상열지사-스캔들’은 은 사마 팬들의 강한 거부와 눈물로 뜻밖의 흥행저조를 보이고 있다.

허상이 실상을 누르고 연출된 이미지가 무한한 집착을 불러오는 시대. ‘나는 아니야’라며 코웃음으로 한 발짝 물러나는 ‘인티 은 사마’ 당선에게도 ‘허상늬움’은 예외가 아니다.

최근 인터넷 세대들에게서 급속도로 변지고 있는 ‘블로그(blog: 인터넷 개인 일기장)’ 문화는 연예인에게나 쇠웠던 허상을 ‘나’에게 덧씌우도록 만들었다. 온라인상의 ‘나’로 대변되는 블로그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탐색력’이 이어지고, ‘나’는 게시물과 방문자 등으로 현실의 능력과 인간관계를 평가받게 된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자들은 ‘블로그 피로’라는 신종용어가 탄생할 만큼 블로그 꾸미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 단장이 격해지면서 ‘나’에 대한 왜곡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진실될 수 있는 일상의 고백록조차 실속없는 화려함으로 물드는 세상. 현실의 아상과 아치를 걷어내기도 버거운 마당에, 사이버상에서 가증되는 자아의 무게는 과연 어떻게 털어내야 할 것인가? ■ 강신재(해부기 기자)

내생각은...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지키는 일...타협대상 안돼

병역은 모든 국가 구성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동등한 권리이자 의무 사항인 것이다. 물론 병역 대체부부 허용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실정법 위반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병역 ‘거부’와 ‘기피’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병역거부 행위를 놓고 봤을 때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것인지, 단순히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 둘째, 병역 선택의 형평성 논란이다. 전방에서 목숨을 내놓고 군복무하는 장병들과 단순 자원봉사 등의 대체복무방식을 선택한 병역 거부자들이나 노동 강도가 과연 동등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는 형평성 논란의 핵심사항이다.

그럼 불교적 입장은 어떠한가? 불교는 병역을 대중적인 차원에서 봤다. 역사적 실례를 살펴보자.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 등은 왜 칼과 창을 들었는가. 승병을 일으킨 이유는 더 큰 살생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 한국전쟁 당시, 강한 군대와 국력이 있었다면 수백만 여 명의 국민이 죽었겠는가.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더 큰 살인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모든 국민들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출가 사수도 예외가 아니다. 스님이기에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정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불교 1600년 역사 속에서 불교가 외부의 침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듯이 최근 특정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지금의 행위는 설득력이 없다.



선웅 조계사 신학생담사 지도법사

비폭력 실천의지 존중돼야

비폭력은 자비의 완전한 구현이다. 비폭력은 인류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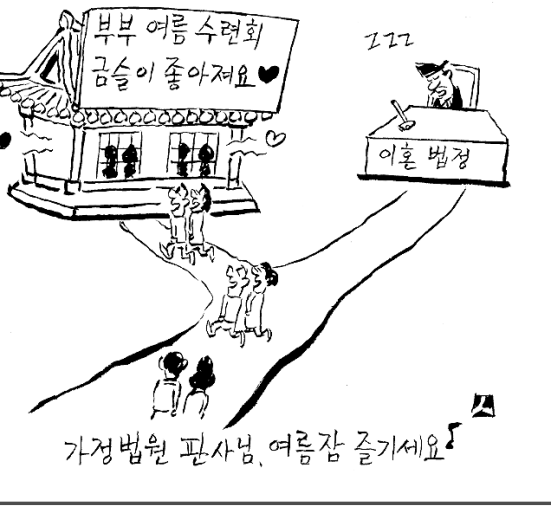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 평화를 지켜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비겁한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다.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무엇이 용기인가? 비폭력과 불살생의 길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의 길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 불안하다. 해서 북타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는 없다. 불안함은 증오와 분노를 바탕으로 한 감정이다. 북타는 “증오는 절대로 증오로서 쉬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에 의해서만 쉬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고 가르쳤다. 불안정한 인간은 사랑으로 성념을, 선함으로 사악함을, 자비로 이기심을, 진실로 거짓을 이겨내야 한다. 이 길을 선택한 소수의 젊은이들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선택에 국가가 대담해야 한다.

핵을 제외한 한국군의 군사력은 세계6위라고 한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한국군은 68만 명씩이나 유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 국방 예산의 60%가량이 군 조적 유지비로 나가고 있다. 한국군은 필요 없는 살을 빼야 한다. 대체복무를 도입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원하는 젊은 인재들이 국가에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국가가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비폭력과 불살생의 길을 걷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진실로 애국을 독려(囑勵)하는 일이다.



이운주원 아침을 여는집 소장

‘연대’ 민영 심민섭



Advertisement for '이상의 학문은 없다' (There is no study above this) featuring '풍수학논법' (Fengshui Logic) and '영부적 대사전' (Yongbujeok Daesajeon). Includes book covers and descriptions of various titles.

Advertisement for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Where did the disease of the modern era come from?) featuring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Includes a photo of a man and a list of symptoms.